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성탄축하 찬양의 밤

(23일, 19:00)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25일, 1부 9:00/2부 11:00)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베들레헴 만국 유의 기적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환난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참 소망을 갖게 합니다. (눅 2:14)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벌이 확정된 죄인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까? 죄인들에게 일어난 크리스마스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눅 2:12)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넘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1·3교육위원회 소속 교회학교(영아부~중등3부, 예바다부·사랑부) 학생들의 믿음이 담겨있는 '성탄축하 찬양의 밤'이 이번 주 화요일(23일, 19:00)에 개최됩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본당에서 모든 순서가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 당일에는 본당에서 1부(9:00), 2부(11:00)에 성탄절 가족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시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용 송가' (말씀 및 찬양곡 수록)를 통해 성탄의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임목사님이 전하실 성탄절 설교 사이 사이에 드릴 찬양은 그동안 각 가정과 금요찬양집의 때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누렸던 은혜와 축복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10)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전하시시오. 이번 주에 성탄을 축하하며 진행될 감사와 찬양의 잔치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나오십시오. 특히 성탄절 가족연합예배(《열아·유아·유치부 자체예배》)시에 가족은 물론 가까운 친척, 이웃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릴 풍성한 감사의 예물로 잊지 마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일드러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함을 얻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 2:11)

*오늘, 찬양예배 시에 2008년 은퇴자 시상식이 있으며, 찬양예배 후에는 2008년 결산 및 2009년 예산을 위한 특별제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28일) 찬양예배에는 제6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는 오후 3시 갈릴라) 및 공동의례(2008년 결산 및 2009년 예산, 세례교인 전원참석)

성탄절예배 메시지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자를 보내셨다 (미가 5:2~9)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지닌 새로운 통치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통치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오늘 성경본문인 미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지도자들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완전한 통치자는 믿음만한 증거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치자는 놀랄만한 출생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그처럼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시리라고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매우 가난하고 작은 동네였기에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은 다윗 왕의 고향(삼상 16:1)이었지만 왕 중의 왕이 나실 장소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완전한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의 영명)

그분은 목자의 지도력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치자는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4절)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을 목자의 모습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양들은 목자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양으로, 구세주를 목자로 자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목자를 믿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거룩한 성)

놀랄만한 능력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치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6절) 아무리 대적이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이기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쁘히 받아들이고, 자녀문제, 재정문제, 대인관계 등등 많은 시련과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메시아는 이 세상 어떤 지도자보다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롬 8:38~39) 의심할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해내시며 최후에는 모든 대적들을 진멸시키실 것입니다. (요 2:28) (주의 성품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치자에게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치자는 자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7~9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곧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조용하게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열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패하실 때까지 이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온갖 역경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역경들도 영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훔이 율리랴)

미가 선지자는 훌륭한 지도자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상적인 지도자가 마침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통치자에게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형제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고전 15:40~49, 51~53)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한 통치자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영원한 삶을 예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WHAT GOD THROWS AWAY

⁽¹⁰⁾“It will be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That I will cut off your horses from among you And destroy your chariots. ⁽¹¹⁾I will also cut off the cities of your land And tear down all your fortifications. ⁽¹⁴⁾I will root out your Asherim from among you And destroy your cities. ⁽¹⁵⁾“And I will execute vengeance in anger and wrath On the nations which have not obeyed.”

(Micah 5:10-15)

At some point or another, we have all most likely had to clean up a desk, closet, room, or perhaps a whole house. In the process, we find just how much stuff we have accumulated. It's amazing how many unnecessary things build up over time. In our desire to reorganize, make things neat, or just clean, we usually must decide what to keep and what to throw away. It's not always easy to figure out what to keep and what to toss. In today's Bible passage, Micah talks about God's purification of Israel. God looked at Israel and determined what needed to be discarded. God's people need to be purged of things that hinder godliness. We are approaching the end of 2008, now is a good time to search our hearts and get rid of all the unnecessary things that draw us away from God. The Christian life involves constant cleansing of displeasing practices that pile up and interfere with our Christian walk, "Therefore consider the members of your earthly body as dead to immortality, impurity, passion, evil desire, and greed, which amounts to idolatry.....But now you also, put them all aside: anger, wrath, malice, slander, and abusive speech from your mouth." (Col. 3:5-8) What God throws away we should throw away. Let's look through God's eyes and see what He throws away with Israel.

Christians need to get rid of objects that destroy their trust in the Lord, "It will be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that I will cut off your horses from among you and destroy your chariots. I will also cut off the cities of your land and tear down all your fortifications." (vv. 10-11) The Israelites must have thought that their wealth and security measures were their ultimate protection. They must have trusted earthly things more than God. God is the only true source of strength and security. The nation that builds its security on military establishments and false faith will see it collapse. People who build their life on material things will see it erode. What objects do you place above God? What kinds of things give you a false sense of security? Is it things related to money, power, or position? Please take the time to examine your heart and get rid of any false hope in material objects that have collected.

Christians need to purge themselves of seeking guidance from someone other than God, "I will cut off sorceries from your hand, and you will have fortune-tellers no more." (v. 12) The Israelites turned to others for future predictions and magical outcomes. There are a lot of deceiving philosophies in

the world today. The end part of Leviticus 19:26 tells us that we should not ".....practice divination or soothsaying." Too many Christians look to their daily newspapers or monthly magazine for their horoscopes or have friends read their tea leaves or palms. Today's Christians think nothing of writing down their dreams and referencing a book written by some pagan for mythical interpretation. God's people need to eliminate these practices from their lives.

Christians need to remove the idols that take the place of God, "I will cut off your carved images and your sacred pillars from among you, so that you will no longer bow down to the work of your hands. I will root out your Asherim from among you and destroy your cities. And I will execute vengeance in anger and wrath on the nations which have not obeyed." (vv. 13-15) The Israelites were influenced by their neighbors, and worshipped others gods. Christianity does not mix with any other religion. Faith in Jesus Christ alone makes Christianity exclusive. You cannot serve God and someone or something else. When you consider our relentless pursuit of influence, right of indulgence, or constant desire to flee suffering of any kind, you can see how humans make themselves into gods. God's people need to focus on God, and not themselves. God's people need to remove all non-biblical worship practices. They need to remove their selfish and prideful habits. They need to rely on God and God alone.

My dear friend, God wants His people to be the best. He wants them to be spotless in character and effective in service. Purification needs to take place. The Lord God knows what needs to be thrown away. Please go to the cross where Jesus died for all our sins. He pleads,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Only Jesus can cleanse your sins and make you into a new creatur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Cor. 5:17) Today is the last Sunday of 2008. God has given us a wonderful message. All sinners need to come to God. He will clean your heart and accept you as His beautiful child. Jesus came not to look for the righteous, but to find the lost. We cannot make ourselves righteous. We should deny ourselves, take our cross, and follow Jesus. Please throw away the unnecessary and unholy things in your life, so that the Holy Spirit can perform God's work through you. Amen. 📖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⁴⁰⁾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⁴¹⁾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

⁽⁴²⁾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⁴³⁾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갇으리라 하셨느니라

(미가 5:10~15)



김성관 목사

어느 순간 우리는 책상이나 옷장, 방 또는 집 전체를 정리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동안 자질구레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는지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쓸데없는 것들이 왜 그렇게 늘어가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 정돈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것들을 놔두고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보관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은 항상 쉽지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에서 미가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서 버려야 할 것들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해 버려야만 합니다. 이제 2008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함당치 못한 습관들을 계속해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임의 부끄러운 말이라” (골 3:5~8)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은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무엇을 제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버리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10~11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부와 땅에서 자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안전의 유일한 참 근원이십니다. 군사시설과 헛된 믿음 위에 국가안보를 의탁하는 나라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삶의 기초를 둔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안전을 맡기고 있습니까? 혹 돈이나 권력, 지위에 관련된 것들이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쌓아둔 재물에 대해 조금이라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제해 버리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버리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서 인도를 구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12절)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를 예언하고 마술의 힘을 빌기 위해 그런 자들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사람들

을 현혹시키는 철학들이 난무합니다. 레위기 19:26의 후반부에는 “……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차도 신분이나 잡지를 보면서 자신들의 운세를 보거나 친구들에게 손금을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꿈을 책으로 펴내거나 신화적인 해석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들을 버리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갇으리라 하셨느니라” (13~15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 나라의 영향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다른 종교와 섞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을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인 수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방종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과, 고통에서 도피하고 싶은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신격화시키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비성경적인 예배 행위를 없애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습관들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흠 없고 유능한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정화작업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오늘은 200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받아주시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Merry Christmas!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Happy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정말 좋아요!

★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없애 주셔서 참 좋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조근서(유치부)

★ 말구유에 나실니로 낳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역시 낳고 천한 내 마음에 직접 찾아오신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박근철(청년1부)

★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기쁘고 귀한 날이기에 즐겁다. 정준재(중등2부)

★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최고의 날이다. 정해원(청년2부)

★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난 날이니까! 최민지(유년부)

★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다.

김수진(초등부)

★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날이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영생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계선(소년부)

★ 크리스마스는 세상 속에서 회무주의와 인생의 희망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지경(대학부)

★ 크리스마스가면 산타와 선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찬양의 밤을 통해 성탄 찬양을 부를 수 있어 행복하다. 강하영(중등1부)

★ 1년 전까지는 그냥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뭔가 들뜨기도 하고 행복한 그런 느낌이었죠. 비록 지금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릴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그날 예수님께 대해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최현호(초등부)

★ 나는 크리스마스가 아주 특별한 파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파티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서(중등3부)

예수님! 저 아시죠?

2007년 11월 7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 엄마는 저에게 태명을 예찬(예수님을 찬양)이라고 지어주셨고, 그 이름 그대로 엄마 뱃속에서 저는 찬양예배를 빠짐없이 들었어요. 또 이 세상에 나올 때에도 매주 주님을 위해 찬송하는 시간이 즐겁답니다. 예수님!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다려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 자유케 된 성탄절! 아직 저는 목소리로 작고 가사도 모르고 뜻도 잘 모르지만 아버지와 엄마와 같이 큰소리로 찬양 드릴게요. 이날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게요.

김시은(아빠(김종식) 엄마(영아부))

Happy Birthday, JESUS!

예수님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저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좋아요.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죠? 맞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전에도 많이 하고 찬양대도 일찍 나오고, 성경도 많이 읽을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데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착해도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슬퍼도, 기뻐도, 예수님께 감사드릴게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고, 이 세상 어떤 나라에도 왕이세요. 다른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예수님!

김지호(초등부)

예수님, 안녕하세요? 정은이예요.

조금만 지나면 구방 예수님의 생신날인 성탄절 12월 25일이 되네요. 얼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것이 변했어요. 어려움을 적에는 왜 내가 교회에 다닐까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다녔었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제가 은혜 받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 마음으로 누군가 의지할 분이 필요할 때, 제 믿음이 부족하여 갈등할 때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어려운 시기와 갈등에서 누가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크리스마스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믿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박정은(소년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영광나라 천사들이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나심 전하라

나의 크리스마스 스토리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한결같았다.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찬양을 하며 24시간을 마감하는 것.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온 나는 그것이 당연했고, 또 유일한 추억거리였다. 그렇게 나 스스로 ‘특별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를 버리려고 할 즈음, 난 학교친구들과 성탄절의 추억을 공유하게 되었다. 남자 친구와의 다정한 거리 데이트로, 가족들과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원했던 나에게 정말 부러울만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다. 학교에서 늘 활기찼던 나에게 거는 친구들의 기대찬 눈빛을 보며 속으로 물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를 알다시피, 난 기독교인이잖아. 일단 성탄절 아침에 가족들과 교회를 가, 아! 물론 선물은 없어. 그냥 내가 좋아서 가는 거야. 교회에서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그리고 말씀도 듣고 오는 거지, 맞아.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재밌고 특별한 크리스마스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느낌은 정말 꺾어봐야 알아. 찬양을 부를 때면 허터를 뜯 것 같지 않은데도 괜히 뽀뽀하고, 기도를 드리면 마음속 어떤 상처들이기가 포근하게 감싸지는 느낌이라.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지지만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왜 그 느낌이 성탄절에만 깊어질까. 그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선 예수님께 무언가 잘못했다고 사죄감이 밀고 있어. 신기하지?”

이 긴 이야기를 마친 후, 조금은 진지해보였던 색다른 나의 모습을 놀라워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교회이야기야?” 하고 살짝 편견을 주는 친구도 있었다. 그리고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은연으로 말을 하는 친구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한 나 내 자신에게 놀라고 말았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늘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했던 나에게는 말이다. 혹시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신 건 아닐까? “나는 이미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단다. 따뜻하고 행복한 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스토리 말이다.”

오지(예고동부)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2003년 12월 24일, 수요일이었던 크리스마스 전날에 동갑내기 친구 네 명은 예수님이 주신 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게 좋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던 24살 때 우리는 기도원에 들어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차도 없이 지하철과 버스로 초원면사무소로 가서 즐겁게 찬양을 부르며 걸어서 충현기도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백받고 싶으셨나 봅니다.

기도원을 향하면서 사람들이 들고 가는 케이크를 보며 “딸기케이크 먹고 싶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는 “난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라며 기도원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우리는 함박웃음이 터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고 계셨던 기도원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찬반1부 몇몇 지체들이 케이크를 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발로 했던 작은 말 한마디도 다 듣고 계심을 보고 느끼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친구,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떨어진 친구,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인지 궁금했던 친구 등 담이 없는 답답함에 주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갈갈한 기도를, 우리 마음을 담은 찬양 하나하나까지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외치던 24살의 그때 우리들이 생각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감사하게도 찬반1부에서 지하철역으로 전도를 하러갑니다.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된 크리스마스를 어찌 보낼지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이치 가장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온 세상이 아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구원하여 주시는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돌리기를 꿈꾸 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짜입니다.

고혜영(영사, 청년1부)

*청년1부는 12월 24일(수) 복음전도교로(2000, 예배 및 노방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제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지 2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전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깨닫아 알게 되었고 지금은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는 믿을 안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모든 것이 감동입니다. 예수님 어떡하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하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의 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항상 제 곁에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저의 남편이 오랜 시간 주님을 떠나 있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믿음과 믿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꿈에 나타나서 제 예수님 형상이나 음성이라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이젠 보여 줄이 거죠?” 제게 남은 시간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선택하여 주셨고 제게 주신 믿음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제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 앞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순종할 것을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예수님, 이런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동안 제 생각대로 행하던 모든 것이 어리석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은 예수님께 맡기고 의논하려 합니다. 특히 항상 제 곁에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어 감사합니다. 항상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송영진(성도, 청년2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깨닫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초등학교 때 성탄절 날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가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때 교회 학생들이 했던 연극에서 처음 아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태어난 아끼 예수님의 이야기는 재현 아주 먼 나라 이야기였고,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로 대변되는 선물과 트리장식으로 기억되는 명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십삼대의 젊은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발렌타인 데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 친구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 없다는 감박관념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크리스마스에 이전에 여자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사귀 여자 친구와 재미있게 놀 궁리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던 삼십삼대의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냥 잊었던 명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자체가 제 삶 속에서 잊혀져 갈 무렵, 외삼촌으로부터 교회에 나와 보라는 제의와 거절하기 힘든 무언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님 3년 전 이맘 때였습니다. 당시 사립유치에 살던 저에게 충현교회는 너무 먼 곳이었고, 교회의 외향만으로 부자 동네 사람들이나 다니는 교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신 중이던 아내가 태교를 문헌하며 먼저 교회에 나가자고 하였고, 우리 내외에게 성경까지 선물하시며 적극적으로 전도하라는 외삼촌 때문에 2006년 성탄절에 예배를 시작으로 처음 주님과 그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찬양때 배 워임복사님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실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들으면 당연한 말씀 같지만 무려 40년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온 저에게 그 말씀이 정말 기적처럼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에 예뻐하신 길이라 생각하니 ‘예수님의 탄생이 어찌 기적이 아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여, 저에게 크리스마스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안 하려고 할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순간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김종용(성도, 10고구)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12. 17.)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디도서 2:12)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분의 자녀가 우리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 (딤후 2:12)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예배

에 열심히 참여한 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사람들을 양육하신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간단하다. 경건하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이 없는 것과 세상의 욕심들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이다. (딤후 1:1)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벧전 1:15-16)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 응답은 곧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흥정하지 않으신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매번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겸손한 척하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시는 그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패역한 행동을 멈추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 2:8-9)

행복해지기 보다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보다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벧전 1:14-15)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

한 삶을 꿈꾼다. 그러나 삶의 초점을 행복에 맞추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아야 한다. "서로 불리 이르되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하더라" (사 6:3)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전에 갇힌 아시아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알고 진실로 회개하였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말하게 하였도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와 이신 왕을 뵈었 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정한 자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된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하였고 네 죄가 사하여졌도나니 하더라 또 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 6:5-8)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시아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 거듭났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로 물든 우리의 영육을 깨끗하게 해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4)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반응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반응은 곧 믿음의 순종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십자가 풍파에 휩쓸려 근심과 절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것에는 치열한 경쟁만이 있다. 치열한 경쟁과 이기심으로 가득찬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고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라 내 아버지께 귀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컬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1-2)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벧 2:5)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벧 2:10-11) 성령님은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엇이 두려웠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자. (갈 2:20) 세상에서의 행복 보다는 거룩한 삶을 간절히 원하며 십자가에 매부신 주님을 힘입어 종교와 험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자.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말씀을 믿으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60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9:38-41)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속하였나이다" (막 9:38)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나도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였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병 고침의 이적을 행하였다. 이것을 흉내내어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귀신에 의해서 혼났다는 것이다. (행 19:13-16)

당시에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았다. 귀신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고치는 일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한 젊은 청년인 예수님은 귀신을 아주 쉽게 내쫓는 일이 빈번하자 종교지도자들은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과 경쟁하였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힘을 잡아내려고 하였다. 결국 종교지도자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나니" (막 3:22)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을 제자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말에 의의를 대답을 하였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막 9:39-40)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다른지 경쟁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하는 '주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제자들은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들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 이면에는 제자들의 탐욕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구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들의 행동들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종교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을 반대자들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아주셨다. (막 2:15)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마 5:44) 결국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내적이니라" (막 12:30)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귀신을 내쫓는 현상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그의 여부를 예수님은 종시였다. (막 9:41) 왜 그런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천국은 기적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성물이다. 천국은 오직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은총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 (마 10:40-42)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심령에 모셔져 있다는 일이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도의 십자가를 이용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자.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내 거기 숨어 들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 얻으리라." (찬 419장) 아멘.

증인들의 고백

- 짧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열심히 듣고 고마워했다. 환한 미소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시원한 찬물과 차로, 전통과자로 접대한 손길들을 난 감을 수 없으나 주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김정숙(권사, 12교구 4지역팀)
-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은 분명 달라 보였다. 전하는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갈구하는 맑은 눈동자를 보며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육체의 피곤함을 잊은 채 새 힘을 얻고 성령충만을 느꼈다. 권성삼(성도, 4교구 6지역팀)
- 인간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이번에 절실히 경험하였다. 사역 둘째 날 경찰에게 적발되어 전도지를 모두 압수당하고 이후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지도 말라는 위협과 그 지역을 떠나는 명령을 듣고 오후 5시 30분경에 숙소에서 짐을 싸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한 사역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새로운 숙소에서 저녁 식사시간 마중 5분 전에 도착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섬세하게 배려해 주셨다. 이경준(목사, 17교구 3지역팀)
- 하루하루 선교하는 방법은 모두 달랐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이 짧은 선교를 통하여 몇 년을 성경공부하여도 깨달을 수 없었던 주님의 역사하심과 큰 은혜를 받았다. 최가영(성도, 13교구 6지역팀)
- 우리 선교팀원들은 할 수 있는 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드렸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지은(예배다부팀)
- 에바다부와 함께한 선교를 통하여 너무나 담연시되었던 내 말과 듣는 귀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장애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이나연(예배다부팀)
- 민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단기선교를 가기로 결심하였고 열심히 준비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로 팔을 다쳤다. "팔에 폐가 되니 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 마음 깊이 가라는 주님의 응답을 들었기에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유우주(목사, 9교구 2지역팀)
- 나는 그녀에게 현저어로 된 전도지를 보여주며 교회에서 훈련받은 열다섯 개 문장의 선교언어를 전했다. 그녀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단번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 김일중(목사, 15교구 4지역팀)
- 팀장으로 처음 나가는 선교를 앞두고 두려움이 컸다. 그만큼 팀장이라는 직책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주님께 애드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나에게 공물을 배부르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다. 이강현(목사, 권사팀)
- 내가 어렸을 때 어느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 집을 방문하여 어눌한 한국어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 적이 있다. 그 선교사의 얼굴과 모습이 가끔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런데 오늘날 한없이 부족한 내가 그렇게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 이근덕(목사, 2교구 3지역팀)
- 선교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도구로 쓰시는 가운데 선교지의 상황 어떻게 이어가시는 온전기사의 말에도 우리 팀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면서 담대히 선교에 임할 수 있었다. 이선재(목사, 11교구 5지역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8일(월)~12월 16일(화)	24교구 10지역	강두형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978	박병택	14	장년2부	박재현(9)	1988	이명희	23	장년1부	미근우(7)	1998	백수진	23	대학부	이미영(7)
1979	강광일	14	장년2부	임순경(17)	1989	이미희	22	장년1부	이복규(22)	1999	최희민	5	중등부	이연미(3)
1980	이연인	4	장년1부	김정경(17)	1990	도미녀	10	장년1부	도승택(1)	2000	김영미	6	중등부	박지연(8)
1981	이명희	7	장년1부	정구원(7)	1991	노은희	19	중등2부	류홍희(2)	2001	조은희	21	대학부	김윤정(17)
1982	안옥현	24		김재진(24)	1992	유세훈	8	중등1부	정해진(24)	2003	박예민	19	대학부	김태은(18)
1983	송기용	14	고등부	김현승(6)	1993	표미연	8	중등1부	김정훈(17)	2004	전병철	3	장년2부	이수진(3)
1984	전진호	18	고등부	채용규(14)	1994	이성민	8	중등2부	이성훈(2)	2005	박복록	24	대학부	미수정(3)
1985	손현진	21	초등부	손도환(21)	1995	김소진	22	중등2부	김영준(22)	2006	이영은	5	대학부	이신애(20)
1986	박복록	4	고등부	전진(2)	1996	김민정	24	대학부	황태형(4)					
1987	김복순	22	장년3부	김선자(18)	1997	박복진	23	대학부	이무미(7)					

※ 종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비천한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ಗಿ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 12월, 이제 거리에는 캐럴송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관계도 없는 자기들만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 분주하고 어수선한 이 때, 세상의 혼란 속에서 빠져나와 나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전통적 유교 집안에서 자라나, 주님을 모르며 살다가 중년이 되어서야 흥헌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던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이전까지만 해도 단지 세계적 축제일을 즐기 위한 기념일이었으며, 한 날 휴일이 불과하였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게, 주님께서는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부어 주셨다. 위임목사님의 부임과 때를 같이 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세상적 쾌락과 가치관을 따라 일회일비한 죄인의 모습에서 진리 진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신앙인의 길을 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교회의 중직자로서 몸 된 교회에 헌신하는 자로까지 세워 주셨다.

이러한 나에게 성탄의 의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죄인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 구원에 대한 감격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참 자유함을 알고자 된 죄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며 맞이하는 감사의 성탄절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소란한 믿음생활 속에서도 나의 회성은 그대로 존재하여서 일몰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았나라고 수없이 다짐하면서조차 정작 어려운 것이 생기면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돌려 회교하고 싶어 했고, 청지기로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노력해 왔던 외식으로 가득찬 죄인의 모습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었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훨씬하듯 들려오는 음성에 나는 무어라 응답할 수 없어 말문이 막힌다. '주님! 지금까지의 편안하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의를 드러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저의 마음속 회개나 지리 잡고 있는 자아를 주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회개해서 기도할뿐이다. 진정한 회개를 하였을 때, 주님은 어떠한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제, 이 성스러운 성탄절을 맞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다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오, 주님! 이 세상의 명예와 자존심으로 허장성세하며 살았던 지난 죄인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비천한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속으로 내세울 것 없는 자에게 평안한 비릿가 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사랑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를 주님의 도구로 새롭게 빚어 주셔서 매순간 나는 부인되어지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신실한 종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철환
(장로, 감사위원장)

